

19세기 미국 복음화에 힘썼던 피터 빌혼은 19살때 시카고 예비뉴 교회에서 설교와 복음 성가를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소질을 발견했고, 저명한 작사자 조지 프레데릭 루트에게서 음악을 공부하며 복음성가 보급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이오와 주의 한 형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복음성가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한 사람이 피터에게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피터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형제의 낙담한 눈빛과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형제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피터는 가사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는 이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그 형무소에 다시 가서 불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0년 후 피터가 뉴욕의 YWCA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육군 대령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피터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20년 전 상한 날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 받아 다시 날 수 있다고 한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한 날개를 가지고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날 수도 없고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받으면 새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버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나아가는 성은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담임목사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진주 성남교회 제직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❷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❸ 주보에 성경읽기를 하시고 말씀 기도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3셀

▶ 다음 주 - 4셀

◆ 1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1/1	신년감사예배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29일 5호

- 2023년 성은교회 표어 -
"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 (사 43:1~7)